

## 한국민담 ‘목(木)도령’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김 진 숙\*\*

### 국문 초록

민담 〈목도령〉의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목도령은 선녀와 나무의 아들로서 아버지·나무의 도움으로 홍수에서 살아남은 뒤 홍수에서 구해준 사내아인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있는 할머니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된다. 할머니에게는 친딸과 의붓딸이 있었는데 홍수에서 구해준 개미와 모기의 도움으로 목도령은 할머니의 친딸과 결혼하고 사내아인은 의붓딸과 결혼하여 두 쌍의 부부가 되어 새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대상민담을 해석하기 위하여 먼저 중심적인 모티브인 나무의 의미를 확충하여 나무가 자기와 리비도의 상징이며 탄생의 주체인 동시에 세계수이자 지혜를 의미하고 이러한 나무의 정령과 천상의 선녀사이에서 탄생한 목도령은 ‘신성한 아이’로서 무의식의 원형을 인지하게 되는 잠재력의 출현으로 보았다. 선녀·어머니가 7~8세에 사라짐은 최고의 선(善)에 이르기 위해서 거처야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고 여성성의 부재에서 출현한 홍수는 무의식의 보상작용으로 보이며 대상 민담에서 홍수를 징벌이 아닌 자연현상으로 보는 점은 만물자화(萬物自化)의 도가사상에 바탕을 둔 동양의 정신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되었다. 남근적인 나무가 홍수와 함께 쓰러지고 여성성적인 배의 역할을 하는 것은 시대의 조류로 가부장적 체계가 붕괴되고 전체를 향하게 된다는 의미와 연관된다고 보았고, 물에서 구해낸 개미와 모기는 본능의 상하(上下)양면을 대변하며 신성을 매개하고 있고, 그들이 도움을 준다는 것은 무의식에서 도움이 온다는 것이다. 홍수에서 구한 사내아인은 수면상태에 있던 삶

접수일 : 2010년 10월 29일 / 심사완료 : 2010년 12월 9일 / 게재확정일 : 2010년 12월 10일

\* 본 논문의 요지는 한국 용 연구원 세미나(2008년 6월 24일)에서 발표했다.

\*\* 명지대학교 특수대학원

의 부분이 깨어나 양극의 긴장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과 연관되고, 아이들을 키워서 새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는 할머니는 국모신이자 태모의 상징으로서 전체성에 이르게 하는 무의식의 근원적 조절자이다. 두 아이의 머슴살이와 할머니가 목도령에게 준 이니시에이션의 시련은 의식의 수준을 낮추어야 무의식이 활성화되며 무의식의 도움으로 통합이 실현된다는 목적의미를 가지며, 초과 모래, 동쪽과 서쪽을 구별하는 작업은 합일을 위해서 먼저 분리를 해야 한다는 것과 연관된다. 두 쌍의 남녀 사위(四位, quaternity)가 새 인류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 4에서 정신의 중심이 생기면서 갱신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저자는 또한 대상 민담에 나타난 여러 다른 사위의 구조를 추정하여 그 상징적 의미를 융의 자기의 구조에 관한 생각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 민담에서 주목할 것은 목도령과 할머니의 친딸, 동(東)방의 양성적(陽性的)인 측면 뿐 아니라 그 대극에 해당하는 의붓딸, 서(西)방, 그리고 목도령의 그림자로 이루어진 음성적(陰性的) 측면을 함께 인류 조상의 두 쌍으로 정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둘 중에 양성적인 측면인 선(善)한 면에 더 무게를 두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중심 단어 :** 목신(木神) · 대홍수 · 사위(四位) · 인류의 조상.

## 들어가는 글

대상민담 목도령은 저자가 오래전부터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민담이다. 나무에서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과 대 홍수와 인류의 조상에 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세상과 인간 창조 그리고 조상의 유래와 관련된 신화는 문화권마다 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민담은 많지 않은 듯하다. 대상민담은 나무의 정기로 선녀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홍수와 시련을 거쳐서 새 인류를 창달하게 된다는 내용을 아이들의 동화책에 등장할 만큼 소박한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민담은 집단적 무의식의 보고(寶庫)이자 보편적 인간심성의 토대의 표현으로서 모든 연령, 인종과 문화에 통용되는 국제 공용어 같다고 폰 프란츠(M.

L. von Franz)는 말한다. 우리가 민담을 공부하는 것은 민담 속에 녹아있는 다양한 원형상과 문제해결 방식을 이해하게 되어 꿈에 나타난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 것 뿐 아니라 해석자 자신도 그 경험을 함께 체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폰 프란츠는 민담해석을 감정적인 체험이나 주관적인 면을 중시하는 일종의 예술적인 작업으로 보면서 민담해석에서 해석자의 주관적인 체험이 중요하고 해석자의 전 존재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1)</sup>

대상민담이 나무와 선녀의 결혼, 대 홍수, 머슴살이와 곤충들의 보은, 진짜 가짜, 인류의 기원 등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선택하기를 주저했으나 나름대로 복잡하게 살아온 삶의 경험이 해석 작업을 통하여 의식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대상민담은 〈목도령설화〉, 〈참나무 아들로 태어난 도령〉, 〈홍수설화〉등의 이본(異本)이 있으나 이야기의 구조는 동일하고 나무 이름이 다르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손진태<sup>2)</sup>가 1923년에 채록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원문에 충실하되 한자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한글로 풀어서 표기하였다.

## 대상민담

옛날 어떤 곳에 한 그루의喬木(교목)이 있었는데, 그 그늘에는 항상 천상의 선녀 한 사람이 내려와 있었다. 선녀는 木神(목신)의 정기에 감응하여 잉태하여 一個美男子(한 아름다운 사내아이)를 출산하였다. 그 兒孩(아이)가 7~8세나 되었을 때 선녀는 천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갑자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여러 달 동안 내린 큰비는 결국 이 세계를 바다로 화하게 하였다. 그리고 크나큰 그 교목도 강풍으로 인하여 넘어지게 되었다. 넘어지면서 교목은 목도령(木神의 아들)에게 향하여 “어서 내 등에 타거라.”하였다. 목도령은 그 나무를 타고 정처 없이 표류하게 되었다. 어디로 얼마를 갔던지 여러 시간이 경과한 후 뒤에서 “사람 살려주오!”하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다보니 그것은 홍수에 떠내려오는 무수한 개미들이었다. 목도령은 그 불쌍한 모양을 보고 아버지인 교목에게 “어떻게 하렵니까?”

1) Von Franz(1996) : *The Interpretation of Fairy Tales*, Shambhala, Boston, p15.

2) 손진태(孫晉泰, 1930) : 《조선민담집 朝鮮民譚集》, 동경 東京 향토연구사 郷土研究社, 에 수록된 내용을 손진태(4280, 1947) : 佛典에서 나온 民族說話 편, 《韓國民族說話의 研究》, 을유 출판에서 재판, pp166-170.

하고 물었다. 고목은 구해주어라.”고 대답하였다. “이 나무에 올라타라.”는 말과 함께 무수한 개미들은 고목의 가지며 앞에 올라붙었다. 또 얼마를 가노라니가 역시 전과 같은 처량한 비명소리가 들리었다. 그것은 한 무리의 모기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였다. 목도령은 다시 고목에게 물었다. 고목은 떠나려가면서 살려 주라고 대답하였다. 모기들이 고목의 가지와 잎사귀 사이에 피신하게 되었다. 개미와 모기를 싣고 방향없이 가는 고목을 향하여 다시 처량한 비명소리가 들리었다. 그것은 목도령과 동년배나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곤충을 살려 준 목도령이 사람을 구해 주고자 하였음은 물론이었다. 그러나 고목은 목도령의 요구를 거절하여 “그것은 구하지 말아라.”라고 하였다. 아이가 뒤에서 다시 “사람 살려주세요!”하고 부르짖었다. 세 번째 아이의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렸을 때 목도령은 견디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인 고목에게 애원하여 겨우 그 아이를 구하게 되었다. 그 때에 고목은 목도령에게 향하여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할 수는 없다마는 다음에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으리라.”고 하였다. 고목은 결국 어떤 조그마한 섬에 표착하게 되었다. 그 섬이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의 가장 높은 봉이었다. 대홍수로 인하여 평지는 물론 세상의 산이란 산은 모두 물속에 잠기게 되었고 오직 그 최고봉만이 겨우 머리를 내밀고 있었을 따름이었다. 두 아이는 그 섬에 내렸다. 개미와 모기들은 목도령에게 백배치사하면서 각각 저 갈 곳으로 가 버렸다. 두 아이는 그 섬 중에 단 하나 있는 초가 한 채를 발견하였다. 주위는 어두웠으나 초가집 중의 조그마한 등불을 찾아 그 집에 이르렀다. 그 집에는 한사람의 老婆(할머니)와 두 처녀가 있었다. 두 처녀는 또한 두 아이와 동년배의 소녀이었다. 한 처녀는 할머니의 친딸이었고 다른 처녀는 그 집의 수양딸이었다. 비가 그치고 홍수는 물러갔으므로 산 아래로 내려와서 보았으나 세상에는 사람의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인류는 홍수로 인하여 전멸된 까닭이었다. 두 아이는 노파의 집에서 奴婢(머슴살이)하게 되었다. 두 쌍의 소년 소녀는 벌써 성년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노파는 두 쌍의 부부를 만들어 세상에 인류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친딸을 어느 청년과 맞출지가 어려운 과제였다. 청년들도 서로의 붓딸(혹은 노비라고도 함)을 구함을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하루는 목도령이 없는 틈을 타서 구조된 청년은 노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도령은 세상에 없는 재주를 가졌습니다. 한 섬의 좁쌀을 모래밭에 흘려 놓고라도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한 섬의 좁쌀을 모래 한날 섞지 않고 도로 원래의 섬에 주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주는 좀처럼 친한 사람이 아니면 보이지 아니합니다.”노파는 신기한 일이라고 그 재주를 시험하고자 목도령에게 청하였다. 그러나 목도령은 생각해 보지도 못한 일이므로 그런 재주는 가지지 못했다고 거절하였다. 노파는 다른 청년의 말을 신용하였으므로 목도령이 나를 무시하는 까닭이라고 대노하였다. 그래서 만일 그것을 시험하지 않으면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목도령은 할 수 없이 한섬의 좁쌀을 모래밭에 흩어 놓고 그것을 들여다 보기만 하고 있었을 따름이었다. 난데없는 한 마리의 개미가 와서 목도령의 발뒤축을 깨물었다. 그리고 돌아다보는 목도령을 향하여 무슨 일로 근심을 하느냐고 물었다. 개미는 그 이유를 듣고 “그까짓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우리들을 살려 주신 은혜를 이제야 갚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어디로 급히 가더니 조금 있다가 수없는 개미떼를 거느리고 와서 개미마다 하나씩 좁쌀을 입에 물고 와서 원래의 섬에 넣었다. 순식간에 좁쌀은 원래의 한 섬이 되고 거기에는 모래 한 알이라도 섞였을 리는 없었다. 개미들은 다시 인사를 하고 저희 갈 곳으로 가고 목도령은 좁쌀 섬을 지키고 있었다. 이윽고 저녁때가 되자 노파는 딸과 다른 청년을 데리고 모래밭에 나타났다. 두 사람은 감탄했지만 한 사람의 청년이 실색하였을 것은 물론이다. 노파는 목도령에게 친딸을 주려고 하였으나 다른 청년이 그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었으므로 노파는 한 방법을 생각해 내어 어떤 어둔 밤에 두 청년을 밖으로 내어 보내고 두 처녀를 東과 西 두 방에 넣어 두었다. 그리고 두 청년에게 서로 들어가고 싶은 방에 들어가서 각자의 복대로 배필을 취하라고 하였다. 두 청년은 서로 어느 방으로 갈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때는 마침 여름이었다. 한 무리의 모기가 목도령의 귀 옆으로 지내 가면서 “목도령 東쪽 방으로 영당당글”하였다. 그래서 목도령은 동쪽 방으로 가서 노파의 친딸을 얻게 되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 두 쌍의 부부의 자손이라고 한다.

(1923년 9월 8일 釜山鎭 金承泰 君 談)

## 분석심리학적 해석

### 1. 목신(木神)과 선녀, 아들의 탄생

옛날 어떤 곳에 한 그루의 喬木(교목)이 있었는데, 그 그늘에는 항상 천상의 선

녀 한 사람이 내려와 있었다. 선녀는 木神(목신)의 정기에 감응하여 잉태하여 一個 美男子(한 아름다운 사내아이)를 출산하였다.

민담은 목신(木神)인 한 그루의 교목(喬木)으로 시작한다. 교목은 줄기가 굵 으면서 8미터가 넘게 곧게 자라나며 비교적 위쪽에서 가지가 퍼지는 나무로서 소나무, 전나무, 향나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육사가 쓴 시 〈喬木〉은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라고 시작한다. 만주 등지에서 독립 투쟁을 하며 고통의 세월을 버텨온 시인의 곳곳한 기상을 느낄 수 있다. 대상민담의 이본(異本) 중에는 계수나무<sup>3)</sup> 또는 참나무가 등장하기도 한다. 나무의 종류가 다양한 것은 특정한 나무만이 신성의 대상이 아니고 나무 그 자체가 신성시되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1919년 무라야마(村山智順)는 승배의 대상이 되는 나무를 조사했는데 전국적으로 1,108그루였고 그중에 동제를 지내는 곳이 450개소였으며 소나무, 느티나무, 밤나무, 박달나무, 버드나무, 오동나무, 싸리나무, 참죽나무, 드릅나무 등이었다.<sup>4)</sup>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나무를 신성시 하는 신목(神木)신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대 동북아시아 문화권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sup>5)</sup> 이능화는 그의 저서 조선신사지에서 신단(神壇)과 신단수(神壇樹)의 절대적 관계를 역설했고, 진서(晉書), 사기(史記), 요사(遼史) 등의 문헌자료를 통하여 숙신(肅愼), 여진(女眞), 선비(鮮卑), 요(遼) 등 동북이족(東北夷族)들이 한결같이 신단수를 모시고 신단을 조성한 공통점을 지적하면서 나무가 동북아시아 정신의 기저가 된다고 하였다.<sup>6)</sup>

동네 어귀에 서 있는 늙은 나무가 우리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묵묵히 내려다 보고 있는 모습은 마을의 수호령 같아서 친근하면서도 경외심이 일어나게 하는 데가 있다. 나무와 아기 탄생과 연관되는 설화로서 나무의 아들은 아니지만 아버지 산소 옆에 있는 나무와 친하게 되어 나무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경

3) 김태곤(1971) : 《한국 무가집》, 원광대 민속학 연구소, 전북, pp226-227.

4) 무라야마(1937) : 部落祭, 朝鮮總督府, pp173-199에서 인용, 조자용(1995) : 三神民考, 가나아트, pp309-310.

5) 고대 중국의 하(夏)나라는 소나무로 은(殷)나라는 측백나무(栢)로 주(周)나라는 밤나무로서 신단수(神壇樹)로 삼았다는 사실이 논어에 나오고, 일본서기에서 신사(神社)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사까끼(榊木)과의 관계를 찾아 볼 수 있다. 조자용(1995) : 三神民考, 가나아트, p312.

6) 李能和(1929) : 朝鮮神事誌, 1978, 韓國學研究所, pp9-12.

우, 하늘의 선녀 대신 자식 없는 과부가 나무 신에게 기도해서 나무도령을 점지 받게 되었다는 설화는 서낭당 나무 아래서 아들을 점지해 달라고 빌었던 한국의 여인들의 모습과 무척 닮아 있는 것 같다. 실제로 가까운 친척 중에 나무 아래 바위에서 기도하여 태어났다 하여 목암(木巖)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나무의 정기를 받고 아기가 태어나는 모티브는 여러 설화에서 볼 수 있다. 북구신화의 주신 오딘, 인도의 크리슈나, 인도네시아의 창조신 시라오 등 세계의 많은 신이 나무에서 태어났거나 나무 자체이고, 나무와 관련이 있다.<sup>7)</sup> 아티스,<sup>8)</sup> 아도니스,<sup>9)</sup> 디오니소스, 미트라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sup>10)</sup> 이시스가 비블로스 궁전에 기둥(djed)이 되어 있던 나무인 오시리스에 의해 잉태하여 호루스가 태어났고, 사라수(娑羅樹)라는 밤나무 밑에서 탄생한 원효<sup>11)</sup>와 신단수를 타고 내려온 환웅이 웅녀와 혼인하여 단군을 낳았다는 설화를 통하여 부성(하늘)과 모성(땅)을 잇는 이그드라실과 같은 세계수의 이미지를 볼 수 있다.<sup>12)</sup> 나무는 전 세계적으로 신화와 민담에서 신성한 나무(神樹) 생명의 나무, 죽음과 재생의 나무, 모성적 속성과 남성적 속성을 함께 갖추고 있는 나무, 지혜의 나무, 희생의 나무,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나무의 관념으로 나눌 수 있고<sup>13)</sup> 나무가 탄생의 주체가 되는 신화적인 나무로서 낙원의 나무, 혹은 생명의 나무를 들 수 있다.<sup>14)</sup> 생명의 나무는 열매를 달고 있는 족보나무, 즉 일종

7) 한국문화상징편찬위원회(1996) : 《한국문화상징사전》, 두산동아, 서울.

8) 키벨레가 거세(去勢)당했을 때, 잘려 떨어진 부분에서 돌아난 편도(扁桃)의 씨에 의해 임신한 하천신(河川神) 상가리오스의 딸 나나에게서 태어났다고 한다.

9) 스미르나가 아버지인 테이아스에 추격을 따돌리기 위하여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해달라는 사정을 하여 스무르나, 혹은 몰약의 나무인 뮈라(myrrha)라는 나무로 변했다. 이 나무의 껍질이 터져서 나온 아이가 아도니스이다. Brosse, Jacques(1989) : 《나무의 신화》, 주향은 역, 1998, 어학사, 서울, p396.

10) 융, C.G.(2005) : 융 기본저작집 7, 《상징과 리비도》, 솔 출판사, 서울.

11) 삼국유사에 만삭이 된 원효의 어머니가 밤나무 밑을 지나다가 갑자기 해산하게 되어 너무 급해서 그 남편의 옷을 나무에 걸고 거기에 누웠으므로 이 나무를 사라수(娑羅樹)라 하였고, 그 나무의 열매인 사라울(娑羅栗)은 한 알로 한 바리에 가득 차게 하는異蹟을 보였다고 한다. 一然 : 三國遺事, 이부영(1987) : “元曉의 神話와 眞實”, 《불교연구》, 3 : 97-112.

12) “세계수 이그드라실은 세계가 멸망할 때 남녀 한 쌍을 자신 속에 숨겨 놓았고 이 남녀에게서 새로워진 세계의 인류가 태어난다.” 융, C.G.(2006) : 융 기본저작집 8, 《영웅과 어머니 원형》, 솔 출판사, 서울, p134-135.

13) 한국문화상징편찬위원회(1996) : 《한국문화상징사전》, 두산동아, 서울.

14) 융, C.G.(2003) : 융 기본저작집 3, 《인격과 전이》, 솔 출판사, 서울, p113.

의 종족의 어머니로서 “죽보나무는 아담의 몸에서 자라나고”<sup>15)</sup> “이세의 가지에서 예수가 탄생한다.”는 것이 생명의 나무의 예가 된다.<sup>16)</sup> 북유럽의 신화에서도 나무가 종족의 시원으로서 신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처음 생명을 불어넣은 질료가 나무(Baum)라 하였고, 아테네에서는 ‘포플러 나무에서 베어낸 자’라는 의미의 아이케이로토모라고 부르는 가문이 있었다. 석가모니가 인도 가야산에서 피팔라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였고 불타가 이 나무 아래서 열반했다 하여 깨달음의 나무라는 뜻에서 보리수(Bodhi-druma)<sup>17)</sup>라고 부른다는 설화는 세계수이자 누미노제 대상으로서의 나무가 지혜와 연관됨을 보여주고 있다. 나무와 연금술과 관련된 문헌에서 용은 나무가 연금술의 용기이자 대지 또는 여성의 몸에서 자라는 무의식에 뿌리를 둔 근원적인 것이 발원하는 과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sup>18)</sup> 용은 <철학자의 나무>에 관한 연구에서 나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나무의 상징은 사면적인 나무로부터 시작하여 성장, 삶, 신체 및 정신적 차원으로 접어들었던 무엇을 펴는 것, 발달, 밑에서 위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자라는 성장, 모성적인 측면으로서 (보호함, 그늘제공, 쉼터, 과일에 영양분 공급, 삶의 근원, 확고함, 영속성, 뿌리를 굳게 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지점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 나이 많은 것(old age), 개성(personality),<sup>19)</sup> 마지막으로

15) 용, C.G.(2006) : 용 기본저작집 8, 《영웅과 어머니 원형》, 솔 출판사, 서울, p95.

16) “이세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돌아난다. 야훼의 영이 그 위에 내린다. 지혜와 슬기를 주는 영, 경륜과 용기를 주는 영, 야훼를 알게 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영이 내린다.”(이사야 10 : 33-34) 이새의 나무줄기는 다윗의 후손인 마리아이고 나무의 새싹은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면서 이새의 나무는 그 자체로 “그리스도교의 신비 안에서 일련의 상징”이 되었다. Brosse, Jacques(1989) : 《나무의 신화》, 주향은 역, 1998, 어학사, 서울, p396.

17) 한국문화상징편찬위원회(1996) : 《한국문화상징사전 1》, 두산동아, 서울.

18) Jung, C. G.(1938) : *Alchemical Studies*, C.W. 13, Princeton University Press, p194-195, ff 242-243.

19) 나무와 개성(personality)에 대한 각주로서 네브카드네자르(Nebuchadnezzar)왕의 꿈에 그 자신이 나무이다. 이것은 확실히 매우 오래되고 원시적인 아이디어이다. 실제로 나무가 한 사람의 삶을 대변하는 것의 예로서 아이가 태어나면 나무를 심고 나무와 아이의 운명이 동일하다고 보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나무는 우리의 컨디션을 보여주는 이미지이자 그것을 반영해 주는 거울이라 하겠다.”(Alciati, *Emblemata cum commentariis*, p888b). Jung, C. G.(1938) : *Alchemical Studies*, C.W. 13,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272-3, ff 350.



죽음과 재생 등 다양한 의미로 발전되었다.<sup>20)</sup>

나무는 가지와 잎이 하늘을 향하고 뿌리가 대지 안에 있고 몸통이 이 두 가지를 잇고 있다는 점에서 천상(天上), 대지(大地), 지하(地下) 삼계(三界)의 축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자기의 상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 그 자체는 무시간성으로 나타나며 이미 모든 탄생 이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sup>21)</sup> 리비도로서의 나무 즉 삶의 에너지와 하늘, 공기, spirit과 영혼을 의미하는 선녀<sup>22)</sup>와의 교감은 일종의 신성혼(hieros gamos)<sup>23)</sup>이라 할 수 있고 목도령의 탄생은 융이 말하는 “기적적인 탄생”으로써 생명력(entelechy) 또는 “자기”의 생성이 일어나는 정신적인 사건이자 정신적인 경험의 묘사라 하겠다.<sup>24)</sup>

융은 <어린이 원형의 심리학>에서 어린이 신과 어린이 영웅의 공통점은 기적적인 탄생과 배척받고 버려지고 위협에 처하는 등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다는 것이고 다른 점은 어린이 신이 초자연적인 불가사의한 성격을 갖는다면 어린이 영웅은 인간인 동시에 어느 정도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서 “반신(semi-divine)”이라는 것이다.<sup>25)</sup> 나무의 정령인 목신과 초속적인 선녀의 아들인 목도령은 어린이 영웅보다는 어린이 신에 더 근접한 것 같다. 융은 “신들 중에서 특히 상징적인 동물 등과 인척관계를 맺은 경우, 인격차원으로 통합되지 못한 집단적 무의식의 인격화”라고 하였다.<sup>26)</sup> 이러한 맥락에서 목도령의 탄생은 나무와 선녀의 신성혼을 통해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을 인지하게 되는 잠재력을 가진 자아의 출현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20) 위의 책, pp272-273, ff 350.

21) 융, C.G.(2003) 융 기본저작집 3, 《인격과 전이》, 솔 출판사, 서울, p191.

22) 선녀는 “단순히 천상적인 것 ‘신의 사자’ 즉 영혼의 인도자일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 설명, 파악할 수 없는 황홀감의 실체인 아니마 원형의 존재를 암시하는 상이다.” 이부영(1995) :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서울, p195.

23) 精氣로 잉태된 아이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로부터 태어난 아기 예수가 연상되고, 햇빛의 형태로 변한 제우스의 기운으로 임신한 아크리시오스 왕의 딸 다나에로부터 태어난 페르세우스를 들 수 있다.

24) Jung, & Kerenyi(1969) : *Essays on a Science of Mytholog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85.

25) 위의 책, pp84-85.

26) 위의 책, pp84-85.

## 모성의 떠남과 홍수

그 兒孩(아이)가 7~8세나 되었을 때 선녀는 천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갑자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여러 달 동안 내린 큰 비는 결국 이 세계를 바다로 화하게 하였다. 그리고 크나큰 그 교목도 강풍으로 인하여 넘어지게 되었다. 넘어지면 서 교목은 목도령(木神의 아들)에게 향하여 “어서 내 등에 타거라.” 하였다. 목도령은 그 나무를 타고 정처 없이 표류하게 되었다.

선녀에게 천상은 돌아가야 할 집이기 때문에 모든 민담에서 선녀는 지상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홀연히 사라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7~8세에 어머니가 사라졌는가? 7~8세는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과 같이 성격과 버릇이 만들어지는 유아기를 거쳐 이제는 어머니 품 또는 집을 떠나야 하는 취학연령이다. ‘어린이’는 자립하여 성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어머니와 집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융은 신성한 어린이가 위험에 처하고 버려지고 노출되는 모티브는 “최고의 선”을 보유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고난이며<sup>27)</sup> 새로운 성장과 탄생을 위해서는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했다.<sup>28)</sup>

모성의 부재는 황량하고 메마른 상태이다. 폰 프란츠<sup>29)</sup>가 고양이 민담에서 소개한 두 다른 왕국은 여성성의 부재로 이미 쇠락한 왕국과 별개의 지배력을 가진 새로운 왕국이다. 모성의 부재는 사람들이 너무 합리적이고 외향적인 삶의 측면만 강조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삶인 페르조나에만 몰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은 무의식 속에 있는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된다.<sup>30)</sup> 아버지·나무를 고목(古木)이라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홍수가 나고 급류에 휩쓸리는 것은 모성이 부재하여 에너지가 고갈된 쇠락한 왕국으로서 새로운 왕국을 이루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하는 것을 의미

27) Jung, & Kerenyi(1969) : *Essays on a Science of Mytholog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85.

28) 융, C.G.(2002) : 융 기본저작집 2 《원형과 무의식》, 솔 출판사, 서울, p258.

29) von Franz(1999) : *The Cat : A Tale of Feminine Redemption*, Inner City Books, Toronto, Canada, p30.

30) von Franz(1996) : *The Interpretation of Fairy Tales*, Shambhala, Boston, pp37-40.

한다. 대상 민담에서는 선녀가 떠남과 홍수가 나는 것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새로운 존재를 탄생시키는 여성성으로서의 물을 생각한다면 홍수는 선녀·여성성의 부재를 보상하는 범람하는 물이라 볼 수 있다. 급격한 변화를 앞두고 있던 몇 년 전에 홍수로 휩쓸려 떠내려가다가 어딘가에 도착하는 꿈을 꾸는 일이 있다. 심리학적으로 홍수는 무의식에 의해 의식이 휩쓸리는 상태이고 임상적으로는 심각한 우울이나 정신적인 혼란 상태를 가정할 수 있다. 홍수가 파괴적이면서도 치수를 잘하면 풍요를 가져오듯이 심각한 우울이나 혼란스러움도 새로운 존재로 갱신되는 기회일 수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명랑한 것을 선호하는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 홍 수

어린 시절 거의 해마다 났던 낙동강의 홍수를 강변에서 구경했던 일이 있다. 꿈틀거리면서 세차게 흘러가던 황토색의 물 가득히 떠내려가는 여러 가지 중에 뿌리 뽑힌 나무도 있었고 거기에 여러 살아있는 생물체가 매달려 있던 것을 본 일이 있다. 그 당시 강변에 살던 사람들에게 홍수는 물난리라고 부를 정도로 해마다 겪어야 했던 재난이었다.

홍수는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린다는 점에서 분명히 파괴적이지만 “홍수 뒤에 풍년이 든다.”는 속설도 있다. 찬란했던 고대 이집트 문명이 나일 강의 범람이 가져다 준 풍요의 결과라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집트 방문 시 그들이 자연의 재해를 풍요로 이끌기 위하여 정교한 방법으로 강 수위를 측정하고 물길을 농지로 돌리는 등의 치밀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낙동강 운하 사업의 경우도 자연의 순리와 리듬을 존중하고 다른 생물체와 공존을 전제로 하여 얼마나 치밀하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국에 전승되는 홍수설화로서 ‘홍수남매형 설화’외에도 다양한 이본들<sup>31)</sup>이 있고, 홍수 후 부부가 박을 낳았는데 그 박속의 모든 종류의 사람 씨가 들어 있었다는 이본도 있다.<sup>32)</sup> 그 외에도 홍수 대신 해일이 등장하는 ‘해일남매홍수설화’가 있고, 대 홍수 후에 모자만 살아남아 여와신의 도움으로 인류 조상이 된다는 ‘백두산 홍수신화’<sup>33)</sup>가 있다. 새 인류 창달을 위한 대홍수 설화는 아프리

카를 제외한 세계도처에 산재한다.<sup>34)</sup> 소위 말하는 <대홍수 설화>에서 주인공과 홍수의 원인 그리고 홍수 후에 새 인류가 만들어지는 내용은 문화권마다 다르지만 홍수를 통하여 오래된 것이 사라지고 살아남은 소수에 의하여 새로운 인류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비는 풍요와 다산, 생명력을 상징하고 오염되지 않는 하늘의 물로 정화를 상징한다. 대상민담에서 비는 여성성 부재로 메마른 영역을 적셔주는 비로서 서양 기독교 문화권에서 가뭄에 내리는 비는 신이 내리는 축복의 상징<sup>35)</sup>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용은 신학자의 꿈과 관련된 해석에서 물을 가장 잘 알려진 무의식의 상징으로 보고, 물은 ‘계곡의 신(谷神)’이며 그 성질이 물과 같은 도(道)의 수룡(水龍)이며 음(陰)에 흡수된 양(陽)으로 보았다. “그러므

- 31) 최내옥(1980) : “한국홍수의 변이양상”, 한국민속학, 12 집 : 한국 설화 중 홍수전설계의 민담이 780개 장소에서 200개의 유헬화 채집하여 이를 1) 고리봉 전설과 2) 홍수 남매혼형 설화, 달래강 전설들로 분류하였다. 이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리봉 전설’은 세상이 물바다가 됐을 때 산꼭대기만 조금 남은 바위에 고리를 달아서 배를 매 두었던 봉우리라는 전설로서 남한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달래강 전설’ 또한 인류조상이 되는 모티브가 없고 도덕과 본능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혼기가 찬 남매가 함께 강을 건너다가 젖은 누나의 몸매에 성적 욕구를 느낀 동생이 죄스럽게 생각하여 자신의 성기를 돌로 쥘어 죽고 말았다. 이를 안 누나가 울면서 “달래나 보지” 하였다 하여 그 곳을 달래고개라 불렀다는 도덕과 본능문제를 다룬 전설이다. <한국문학구비대개>, 5-1-전라북도 남원군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한국의 홍수관련 설화의 변이형으로 <장자 못> 설화는 인색한 부자가 시주승에게 쌀 대신 쇠똥을 시주했다가 벌을 받아 못 속에 잠겼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지명 유래 답으로 광범위하게 채록되고 있다. 현재 장자 못이 있다고 확인된 곳만 해도 100여 곳이 넘는다고 한다. 최상수, 1984 : <韓國民間傳説集>. 유헬로서 한 예언가가 뒷산 들머리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면 홍수가 날것이니 떠나라고 한다. 어떤 불량배가 장난삼아 붉은 물감을 머리의 눈에 칠하여 피눈물을 만들었더니 갑자기 홍수와 해일이 몰아쳐 그 동네가 물에 잠긴다.
- 32) 한상수(편)(1980) : <한국민담선>, 정음사, 서울.
- 33) 백두산 홍수설화의 경우, 남매나 모자가 홍수 후에 살아남아서 새 인류의 시조가 된다. 천지의 물 과 홍수가 있을 후에 하늘의 여신 여와가 모자를 불쌍히 여겨 손녀(선녀)를 내려 보내 홍수를 막고 홀로 남은 아들을 키워 결혼을 하여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고 한다.
- 34) 한국, 중국, 메소포타미아, 고대 수메르와 바빌로니아, 노아의 홍수, 그리스 이집트, 인도, 바빌로니아, 중앙아시아, 잉카, 아즈텍, 하와이, 북미 인디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비얼레인(1994) : <세계의 유사신화>, 현준민 옮김(1996), 세종서적.
- 35) 시인 엘리엇(Eliot, T.S.)은 저주의 땅 황무지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비라고 생각하였다. ‘내가 제 때에 내려주는 가랑비, 때맞게 내려주는 소나기가 복을 실어다 주는 비가 되리라’(예제키엘 34 : 26).

로 물은 심리학적으로 무의식화된 정신(Geist)이라 불린다.”<sup>36)</sup> 그러므로 도가에서 말하는 현묘한 암컷이기도 한 “무의식으로서의 물은 모든 것을 지배하며, 그 속에서 길을 잃으며, 그 속에서 잘못이 고쳐진다.”<sup>37)</sup> 바람·폭풍은 급격한 기류의 변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풍요의 숨, 영감, 또는 성스러운 정신 등을 의미하며 신의 말, 우주의 기를 상징하는 등 강한 종교적인 색채를 띠기도 하고 질풍노도(疾風怒濤)와 같은 막을 수 없는 역사의 물줄기와 연관되기도 한다. 한국현대사는 격동의 시기라 해도 좋을 것이다. 반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종가집이 망한다는 대하소설(大河小說) 같은 내용도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위한 큰 물길인 대하(大河)로서 홍수이자 폭풍우였다고 하겠다.

심리학적으로 갱신을 의미하는 홍수는 생명을 부여하고 탄생시키는 물로서 “모든 것의 생성원리가 되는 대양(大洋)”의 단순한 대응물로서 영웅을 재탄생시키는 이중적인 어머니의 역할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죽이고 또한 살리는 물은 그 속에서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준비하는 성수’<sup>38)</sup>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차원에서 홍수는 세례 때의 물과 비교될 수 있다. 세례의식에서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나타내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 즉 새로운 삶을 나타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홍수는 우주적인 규모로 일어난 세례의 상징<sup>39)</sup>으로서 대담민담에서는 부재하는 모성·여성·아니마를 찾는 것을 준비하는 정화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 전승되는 홍수설화의 경우 대부분이 높은 지역에 살던 남매나 모자가 그냥 살아남는 데 비해 대담민담에서는 홍수 속에 휩쓸리다가 살아남는다는 차이점은 성수로서의 물의 의미로 볼 때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듯 하다. 서양에서는 13세기까지 홍수라는 단어를 원죄홍수라고 부를 정도로 홍수가 신의 대한 인간의 징벌<sup>40)</sup>로서 중

36) 용, C.G.(2002) : 용 기본저작집 2 《원형과 무의식》, 솔 출판사, 서울, p125.

37) 용, C.G.(2004) : 용 기본저작집 6,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솔 출판사, 서울, p24.

38) 용, C.G.(2003) : 용 기본저작집 3, 《인격과 전이》 솔 출판사, 서울, pp259-261.

39) Ackroyd, E.(1993) : 《꿈 상징사전》, 김병준 옮김, 1997. 한국심리치료연구소, p258.

40) 홍수 관련 유헬들 대부분은 홍수를 일으키는 이유가 있다. 중국은 뇌공과 고비의 형제의 싸움에서 진 뇌공의 심술, 수메르의 경우 인간의 불평, 바빌로니아는 압수의 티아맛 살해, 히브리는 야훼신의 진노, 그리스와 잉카의 경우 인간정치 등 어떤 갈등의 해소나 정화 등 목적이 뚜렷한데 비해 중앙 아시아와 <목도령>의 경우는 그냥 일어난다.

교적인 색채가 강했고 홍수를 예고해주는 인물들<sup>41)</sup>이 있는 것에 비하여 한국의 홍수신화는 마치 역사의 흐름같이 그저 일어나는 자연현상으로 도가에서 말하는 만물자화(萬物自化)가 연상이 된다.<sup>42)</sup>

## 아버지 · 목신 · 배

아버지는 한 집안을 이어나가기 위해 아들이 습득해야 하고 또 자신의 자손들에게 계승해야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물려받는 원천으로서 아들의 존재를 통해 조상들의 물질적, 정신적 그리고 문화적 유산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전통을 의미한다. 심리학적 의미에서 아버지는 남성적인 의식을 대표하는 것이다.<sup>43)</sup> 신화나 전설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정신적, 영적인 면의 우월성을 상징한다. 아버지는 태양, 영(靈)성, 남성원리이자 여성적이고 직관적인 본능의 힘에 대립하는 것이며, 법과 질서의 체제적인 힘이라 하겠다. 부성의 원리인 아버지 · 나무가 홍수로 쓰러져서 일종의 배의 역할을 하고 있음이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희생자 적인 아버지들을 연상하게 한다. 홍수가 나면서부터 나무를 고목(古木)이라고 부르는 것은 해묵은 부성 및 남성원리의 전통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육사의 시〈喬木〉의 마지막 연에서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지 못해라.”라는 구절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비장하게 쓰러지면서도 그 기개만은 굽히지 않는 나무 ·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목으로서의 아버지는 홍수로 인하여 사라져야 될 운명이기는 하지만, 태모의 파괴적인 혼란 속에서 살아남아 창조적인 태모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주인공은 고목—아버지의 지혜에 의지해야만 한다.

홍수 관련 유희들에서 홍수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주로 모양을 갖춘 배이

41) 중국은 하늘의 신 뇌공, 중앙아시아 하늘의 신(tengri), 수메르는 구원의 신 엔키(Enki), 바빌로니아 에아(Ea)이고 잉카는 별과 산위에 사는 동물 라마들 다양하다. 그리스의 경우는 아버지인 프로 메테우스로서 목도령의 아버지 · 나무 모티브와 비슷하다.

42) 도(道)는 천지자연의 도처럼 자의식이 없는 도이므로, 거기에는 아상(我相)과 아애(我愛)가 없어서 잘난 채 하는 것이 개입될 여지가 없고 만물이 하나의 뿌리로 동화되는 흥천지동근(興天地同根)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김형효(2004) : 《사유하는 도덕경》, 소나무, 서울, p114.

43) 박신(2004) : 《부성콤플렉스의 분석심리학적 이해》, Diploma Thesis of C.G. Jung Institute of Korea.

다.<sup>44)</sup> 특히 노아의 방주는 매우 세부적인 구조와 정확한 치수로 오랫동안 지었던 구조물이었는데 대상민담에는 쓰러진 나무 그 자체라는 점이 대조적이다. 유대기독교 문화와 구별되는 한국인의 다듬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정서를 연상하게 된다. 질박함(樸)은 도(道)의 상징으로서 아버지·나무의 모습에서 이러한 무극(無極)의 상도(常道)를 엿 볼 수 있다. 배는 물을 안전하게 건너게 해 주는 운송수단이다. 배는 물위에서 항상 떠있게 하여 무의식 속으로 빠져 익사하지 않게 한다. 폰 프란츠는 분석심리학이 우리가 길을 잃고 좌절 했을 때 매달릴 수 있는 어떤 가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분석심리학을 또 다른 의미의 배라고 하였다.<sup>45)</sup> 저자를 포함한 분석심리학자들이 분석심리학이라는 배를 타야만 했던 이유를 은유적으로 잘 보여주는 듯하다.

배는 정상적으로는 걸어갈 수 없는 물을 건너가는 인간의 발명품으로서 원형적인 여성적인 상징인 달, 생식과 관련<sup>46)</sup>되지만 이집트에서는 태양과 연관시키기도 한다. 그들에 있어서 태양신의 배 라(Ra)는 신들로부터 유래한 것이며, 신성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들이 모든 종교의식에 중요하게 다루는 라의 배는 사후에 새로 태어나기 위하여 건너야 하는 바다를 향해가기 위하여 부장품으로 포함시키기도 한다. 우리 무속에서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용선(龍船)의 의미와 다르지 않은 듯 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의 방편인 반야(般若), 힌두교의 법 다르마(dharma)같은 법도와도 연관할 수 있다. 대상민담에서 수직으로 서 있던 남근·아버지·나무가 수평으로 쓰러져 여성성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일종의 배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가부장 체계가 허물어지고 더 높은 차원의 합일을 향한 죽음의 물을 건너게 하는 방편이자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개미와 모기의 구출

어디로 얼마를 갔던지 여러 시간이 경과한 후 뒤에서 “사람 살려 주오!”하는 소

44) 수메르, 바빌로니아, 그리스의 홍수설화의 경우는 배, 히브리에는 방주, 중앙아시아는 나무로 만든 배(Kerep)이고 중국 설화는 뇌공의 보은으로 준 이빨을 심어서 난 박 등이다.

45) von Franz(1999) : *The Cat : A Tale of Feminine Redemption*, Inner City Books, Toronto, Canada, p34.

46) 위의 책, p33.



리가 들렸다. 돌아다보니 그것은 홍수에 떠내려 오는 무수한 개미들이었다. 목도령은 그 불쌍한 모양을 보고 아버지인 고목에게 어떻게 하랍니까? 하고 물었다. 고목은 “구해주어라.”고 대답하였다 … 또 얼마를 가노라니까 역시 전과 같은 처량한 비명이 들리었다. 그것은 한 무리의 모기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였다. 목도령은 다시 고목에게 물었다. 고목은 떠내려가면서 살려 주라고 대답하였다.

대부분의 모성 부재와 연관되는 민담<sup>47)</sup>의 주인공들은 보통 여성이나 동물들의 도움 받는데 대상민담에서는 곤충이라는 것이 특이하다. 생태학적으로 곤충들은 가장 오래전에 만들어진 생물체로서 오래전부터 인류와 함께 했다.<sup>48)</sup> 그 중에 개미와 모기는 인간과 매우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곤충으로서 본능적인 충동이나 무의식적인 힘을 상징하며 집단적인 성격을 지닌다. 제일 먼저 구한 것이 개미이다.

## 개미의 상징

개미는 강한 턱과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몸보다 더 큰 것을 옮길 수 있고 태산을 옮기고 방죽을 무너트릴 수 있는 강한 협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잘 것 없지만 큰일을 완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개미를 의미하는 한자의 의(蟻)가 이로운(義) 벌레(虫), 질서정연하게 행진하고 순종하는 데서 이루어진 글자이다. 개미의 어원이 ‘경사스러운 일’을 뜻하며 특히 다남 또는 다손을 의미함으로 풍요와 세계창조의 원동력이 된다.<sup>49)</sup> 동양 문화권에서 개미는 덕행과 애국심을 의미하고, 서양의 흰 개미처럼 살인자, 파괴자의 의미가 있다. 개미떼가 들끓으면 비가 온다든지 미트라스신의 기적적인 세계창조

47) “모성이 부재한 가정”의 모티프로서 러시아 민담 “개구리 공주”(《러시아전래동화 베스트 9》, 서울 : 국민출판사, 2005. 9-28), 그림동화집의 “세 개의 깃털”(《그림동화집》, Nr.63, I,462), 중국 짱족의 민담 “셋째와 족장”(《민담과 소수민족이야기 : 청개구리기수》, 59-70) 등에도 나타나는데, 폰 프란츠(1970)는 그림(Grimm)이 모은 민담 가운데서 이런 설정은 50-60여개나 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단군신화”에서도 어머니나 누이 없이 아버지와 아들만 나오는 것도 비슷한 설정이라 하겠다.

48) 고대크레타문명 5000-2000BC의 것으로 추정되는 파리 모양의 돌로 만든 인장이나, 1700-1300 BC 경에 나타나는 별로 만든 장신구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J.A. Sake-llarakis : Herakleion Museum, Ekdotike Atheon, S.A. Athens, 2003.

49) 한국문화상징편찬위원회(1996) : 《한국문화상징사전 1》, 두산동아, 서울.



에 관여한다<sup>50)</sup>는 점에서 개미는 예언적이고 기적적인 창조와 관련이 있다. Stith Thompson의 Motif Index에 나타나는 개미에 관한 관련 자료로써 신에게 날개를 부탁했으나 받은 날개가 바람에 날아간 경우(A2232.9), 비단실을 감옥에 가져다 준 경우(R121.4), 개미가 사람이 되는(A1224.7), 금을 파내는 개미(B756) 등을 들 수 있다.<sup>51)</sup> 고대 로마에서 개미는 농사와 풍요의 여신 케레스(Ceres)의 부속물이었다. 아프리카 서부 말리(Mali)의 신화에서 태초에 하늘과 땅이 신성결혼을 할 때 땅의 성기는 개미집이었다. 풍요를 기원하는 모든 의식은 개미와 연관되어 있고 특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개미집 위에 앉아 최고신 아마에게 아기 배기를 기원한다<sup>52)</sup>는 점에서 개미는 세계 창조의 원동력이라 하겠다.

## 모기의 상징

모기는 작고 하찮고 신경을 자극하는 성가신 곤충으로 긴 침을 가지고 있고 전염병 말라리아를 옮기기도 한다. 가벼운 몸으로 자기보다 몇 십 배 큰 사람의 몸에서 피를 빨아서 배를 채운다는 점에서 작지만 크다.<sup>53)</sup> 모기는 알·유충·벚데기·성충을 거치는 곤충이다. 알은 일반적으로 물 위에 낳고 물 귀하수구 및 방화용수, 계곡의 움푹한 곳에 귀 물 속, 바닷가 바위에 귀 물 속 등 부패한 물 또는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 등에서 서식한다.<sup>54)</sup> 높이나 갇혀 있는 물에서 유충 시절을 보낸다는 모기는 무의식에서 유래된 위험하기도 하지만 보은을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내면에 살아 있는 누미노제 경험을 나타내

50) 미트라스 신의 탄생과 “그의 고통스러웠던 일생은 인간의 고통을 보여주는 상징이 된다. 희생된 소의 몸이 약초와 식물 척추에서는 동물과 곡식이 나오고 그의 피에서 포도주를 생산하는 포도가 열리는 등의 방식으로 세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악의 신이 이러한 기적적인 창조를 방해하려고 전갈과 개미 그리고 뱀에게 소의 생식기를 먹게 하고 피를 마시게 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Ulansey, D.(1989) : *The Origins of the Mithraic Mysteries : Cosmology and Salvation in the Ancient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New York, Toronto.

51) Thompson, S.(1975) : *Motif Index of Folk-Literature*,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 London.

52) 한국문화상징편찬위원회(1996) : 《한국문화상징사전》, 두산동아, 서울.

53) 위의 책.

54) 위의 책.

는 것으로 잘 알려진 상징<sup>55)</sup>이기도 하다.

여러 곤충 중에도 개미와 모기가 등장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개미와 모기는 각각 땅에 기는 것과 하늘을 나는 곤충으로 인간 내면에 살아 있는 원형적 존재의 상·하 적인 대극을 표현한다. 개미가 인간을 해롭지 않다면 모기는 해로운 것으로 모기는 개미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 모기에 대한 ‘방리득보(放鯉得寶)형 설화’는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중국, 일본, 유럽 등 범세계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대상민담에서도 개미와 모기는 하찮은 곤충이지만 살려 준 은혜를 갚을 줄 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담에서 해로운 모기 즉 그림자와 악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곤충의 본능 같은 것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과 신경을 자극하고 해롭다고 생각하는 곳에 도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전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심리학적으로 볼 때 한 집단이나 개인이 삶의 위기에 봉착하여 씨름하다가 모든 방법이 여의치 않자 무의식에 들어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무의식의 성가신 부분, 즉 콤플렉스를 대면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성가신 콤플렉스의 대면과 미물들을 불쌍히 여긴 목도령의 자비심이 큰 보은으로 돌아오게 된다.

## 사내아이의 구출

개미와 모기를 신고 방향 없이 가는 고목을 향하여 다시 처량한 비명이 들리었다. 그것은 목도령과 동년배나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 그러나 고목은 목도령의 요구를 거절하여 “그것은 구하지 말아라.”라고 하였다 … 세 번째 아이의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렸을 때 목도령은 건디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인 고목에게 애원하여 겨우 그 아이를 구하게 되었다. 그때에 고목은 목도령에게 향하여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할 수는 없다마는 다음에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으리라.”고 하였다.

목도령과 나이는 같지만 누군지 모르는 사내아이의 출현은 양극성을 출현

55) Apt, T.(2005) : 《용 심리학적 그림해석》, 분석심리학연구소, 이유경 역(2008), p168.

으로 “숫자 1의 어떤 내용이 떠올라서 의식의 경계에 이르게 되면 둘로 나누어진다.<sup>56)</sup>는 것과 관련이 있다. 아이 하나에서 둘이 되었다는 것은 수면상태에 있던 삶의 부분이 깨어나 삶 속에서 양극의 긴장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내아이의 출현은 자신의 내부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또 하나의 ‘나’가 의식의 부분으로 동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sup>57)</sup> 사내아이가 세 번씩<sup>58)</sup>이나 함께 살자고 집요하게 소리치듯이 거부당한 인격은 살기를 원한다. 거부당했던 ‘또 하나의 나’의 부분에 온갖 잠재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고 볼 때 이를 살려내는 것이 인격발달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목도령이 세 번씩이나 아버지의 허락을 일일이 구하는 태도는 가부장 문화의 흔적이라 볼 수 있고, 아버지 나무가 사내아이를 구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던 것은 착하지만 순진해서 악의 실체를 미리 간파하지 못하는 아들의 성격과 그것이 가져올 결과가 아들에게 해로울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사건이 가져올 긍정적인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 아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세속적인 아버지와 무극(無極)으로서의 어린이·아들의 차이로 봐도 좋을 것이다.

그림 1은 자아와 그림자의 대극을 대변하는 목도령·사내아이와, 날아다니는 모기와 기어다니는 개미라는 두 쌍의 대극이 아버지·나무를 중심으로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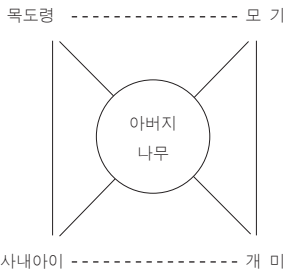


그림 1.

56) Von Franz(1974) : The Number and Time,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pp91-92.

57) 이부영(1995) :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서울, p77.

58) 많은 민담이나 신화에서 세 가지의 시련 등의 형태로 드러난다. 성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세 번의 유혹, 베드로의 세 번의 부정, 등 세 번 반복하는 관습은 민담을 위시하여 종교와 마법의 영역 곳곳에 널리 퍼져있다.

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목도령과 모기는 인간과 미물이라는 대극의 상위적인 쌍이라면, 사내아이와 개미는 그 하위적인 쌍이라 추정할 수 있으나 그 연관성이 불명료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점선으로 처리하였다.

### 육도집경(六度集經)과 자비심

대부분의 홍수 관련 유회에서는 살아남은 생물체들이 배 또는 방주 안에서 생활하다가 홍수가 끝났을 때 까마귀나 비둘기들을 내보내는 정도의 활동만 하는데 대상 민담에서는 홍수에 휩쓸리면서도 세 가지 살아있는 것을 구한다는 것이 특이하다. 이러한 특징은 대상민담이 불경에서 나오는 설화라는 점과 연관시킬 수 있다. 손진태(1930)는 중국의 삼국시대 오나라의 강증회(康僧會)가 집필한 <육도집경>에 대상민담과 비슷한 내용이 있고 이것을 목도령 민담의 근원 전설로 지목하고 있다. <육도집경>은 부처님의 본생담(本生譚)으로서 보살의 실천덕목인 여섯 가지 바라밀다행(六度)을 실천한 예들을 명시하여 설해 놓은 것이고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훌륭한 보살이 있었는데 장터에 내놓은 거북을 보고 불쌍히 여겨 이를 사서 상처를 치료하고 물가에 놓아주었다. 뒷날 이 거북이 찾아와서 홍수가 나서 큰 해를 입을 것이라고 알려주어 그 사실을 보살이 왕에게 알렸고 왕이 이 말을 믿고 높은 지대로 자리를 옮겼다. 홍수가 나서 배를 탔는데 뱀이 와서 보살이 이를 받아들이니 거북이 좋다고 하고 또 여우가 와서 받아들이니 거북이 좋다고 하였는데 사람이 떠내려와 살려달라 호소해서 이를 받아들이니 거북이 받아들이는 것을 삼가라 하면서 사람의 마음은 거짓이 많아 믿기 어렵고 은혜를 배반하고 반역을 일삼는다 했다. 이에 보살이 버려지를 이미 구제 했는데 내가 사람을 업수히 여기면 어찌 仁(인)이라 하겠느냐 나는 참지 못한다 하며 사람을 받아들였다. 거북이 후회할 일이라 말했다. 땅에 닿아 거북이 물러가기를 청했고 뱀과 여우도 모두 떠났다. 여우는 구멍에 거처를 정했는데 옛날 사람이 금백근을 숨겨둔 것을 얻고 기뻐 보살에게 주니 그가 이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떠내려가던 사람이 이를 보고는 나에게도 반을 주라 했고 열근을 주니 표류인이 말하기를 그 대는 무덤을 파서 숲을 도둑질 했으니 반을 안주면 관아에 고발하겠다 하고 결국

고소하고 보살은 감옥에 갇히게 된다. 뱀과 여우가 의논하다 뱀이 자기가 좋은 약을 주겠다 하며 감옥의 보살을 찾아가 내가 태자를 물 터인데 이 약을 주면 나를 것이라 한다. 태자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보살이 이 약으로 고쳐 왕이 오해를 풀고 표류인을 잡아 옥에 가두고 보살은 죄를 씻게 되어 원상(圓相)으로 잘 살았다.<sup>59)</sup>

목도령의 나무 대신 거북이 홍수에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뱀, 여우와 사람 순서로 구해 내면서 거북에게 일일이 물었다는 것과 사람은 구하지 말라는 것은 동일하다. 보살이 표류인으로 인하여 옥에 갇히고 뱀이 영약으로 보살을 구하고 표류인은 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은 다르다. 대상민담의 근원 전설인 <육도집경>에는 악(惡)이 옥에 갇히는데 대상 민담에서는 아무도 옥에 갇히지 않고 모두 함께 인류의 조상이 된다. 선한 사람은 스승이고 선하지 않은 사람은 참고가 되는 것이다. 자비심을 강조하는 불경에서 악(惡)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자비심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마음(無私心) 즉 자아중심적인 태도를 버리는 것과 관계가 있다. 동물, 곤충, 사람 모두 구별 없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자기(Self)가 중심이 되는 자세이자 진정한 자비심이라 하겠다. 대상민담의 경우도 여러 차원의 대극합일 모티브로 보편적인 인간 심성을 표현하고 있지만 불교설화에서 유래된 민담인 만큼 선한 쪽에 다소 치우쳐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 섬 산꼭대기에 도착

고목은 결국 어떤 조그마한 섬에 표착하게 되었다. 그 섬이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의 가장 높은 봉이었다 … 두 아이는 그 섬에 내렸다. 개미와 모기들은 목도령에게 백배치사하면서 각각 저 갈 곳으로 가 버렸다. 두 아이는 그 섬 중에 단 하나 있는 초가 한 채를 발견하였다. 주위는 어두웠으나 초가집 중의 조그마한 등불을 찾아 그 집에 이르렀다.

대 홍수와 연관되는 유화에서 새 인류의 조상이 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다시 전체가 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최소 단위라는 것은 동일하다. 다른 문화권의 홍수설화에서 살아남은 삶이나 동물들은 다양한 모습이고 숫자도 다양

59) 고려판대장경, 卷 3 中.

한데<sup>60)</sup> 대상민담의 경우 두 사내아이와 개미와 모기이다. 목도령이 제일 먼저 구한 것이 땅을 상징하는 개미이고 그 다음에 하늘을 상징하는 모기 그리고 마지막에 사내아이를 구했다는 순서가 흥미롭다. 개미와 모기가 地天의 상하 대극이라면 목도령과 사내아이는 자아와 그림자의 대극으로서 전체의 상징인 4위의 모티브가 되고 아버지·나무가 그들 4위의 축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어린이이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집단무의식을 상징하는 곤충으로서 성숙해야 하고 의식화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도착한 곳은 문화권에 따라서 다양하다.<sup>61)</sup> 대상민담의 경우,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였다. 높은 봉우리는 하늘과 제일 가까운 장소로서 정신적으로 고양된 장소이자 신성(神性)이 머무는 곳이다. 기도는 주로 산에 가서 하고 모세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야훼신과 만나는 장소가 산 위이다. 이러한 산봉우리는 “너희 눈을 들어서 산을 보라 … 구원은 거기서 온다.”라는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엘리아>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가장 높은 봉우리는 확고하고 안전한 입지를 의미한다. 아래에서 확고하게 받혀주는 땅이 있기 때문이다. 목도령이 도착한 새 땅은 정신적으로 고양된 확고한 장소이지만 세 명의 여성들만 있는 곳, 다시 말해 남성성의 결핍된 곳으로서 남녀 합일을 위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하겠다.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정신적인 장소인 산 위를 보게 되고, 거기에서 무의식의 빛과 견줄 수 있는 희미한 등불을 찾게 된다.

## 할머니와 네 어린이들

그 집에는 한 사람의 老婆(할머니)와 두 처녀가 있었다. 두 처녀는 또한 두 아이와 동년배의 소녀이었다. 한 처녀는 할머니의 친딸이었고 다른 처녀는 그 집의 의붓딸이었다. 두 아이는 노파의 집에서 奴婢(머슴살이)하게 되었다.

60) 한국 홍수남매혼과 중국은 남매(여와와 복희), 중앙아시아(나마와 세 아들, 온갖 동물과 곡식), 수메르(지우쑤드라), 바빌로니아(우트나피스티므), 히브리(노아 가족과 온갖 동물들), 그리스(데칼리온과 피라부부), 잉카(형제, 가족들)이다.

61) 중앙아시아는 8 봉우리의 섬, 히브리는 아랏산 등마루, 그리스는 진흙천지, 중국과 바빌로니아는 그냥 내림, 잉카 산 아래 마른 땅 등이다.

한국의 민담 속에 나타나는 할머니는 현실의 할머니가 그러하듯이 나쁜 역할 보다는 늘 도움을 주는 자상한 인물로 나타나며 사물을 꿰뚫어 모든 것을 예견하는 예지 기능이며 정신적 위기에서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힘을 상징한다.<sup>62)</sup> 높은 산 봉우리의 작은 초가집에서 시조가 될 아이들을 돌보는 외면적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노파는 선도산(仙桃山), 또는 서술산(西述山)이라는 산의 산신이자 신라의 시조 혁거세를 낳았다는 국모신 서술성모(西述聖母), 또는 선도성모(仙桃聖母)<sup>63)</sup>를 연상하게 하는 지혜로운 노현여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여산신(女産神), 지모신(地母神), 그리고 국모신(國母神)이자 <백두산 홍수설화>의 여와와 같은 태모(太母, Great Mother)상징으로 전체성에 이르게 하는 무의식의 근원적 조절자라 하겠다.

움은 ‘하늘 위의 어떤 곳’ 어디엔가 어머니의 원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모성적인 것’의 모든 현상에 앞서 존재하고 상위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sup>64)</sup> 움이 언급한 몇 가지의 전형적인 모성원형(母性原型)의 형태에는 개인적인 어머니와 할머니, 계모와 장모 및 시어머니,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밖의 여인, 유모나 보모, 조상 할머니나 백색의 여인, 보다 높은 의미에서는 여신, 특히 모성 신, 지혜의 여신 소피아 등이 있다.<sup>65)</sup> 영웅은 자주 두 어머니를 갖는다. 대상민담의 경우 할머니는 모성원형으로서 양 어머니라 할 수 있다.

대 홍수 관련 유화에서 대부분이 주인공들이 새 땅에 도착해서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인류의 조상이 되는데<sup>66)</sup> 대상 민담의 경우,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62) 이부영(1995) :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서울, p211.

63) 그는 원래 중국 황실의 공주로 신라에 와서 오래 살다가 중국에 돌아가지 않고 선도산에 머무르는 신모가 되어 혁거세와 왕비 알영도 낳았고 이후 중요한 불사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선도성모에 대한 이야기는 지리산의 노고단(老姑壇)의 이름과도 연관이 있다. 노고단은 신라시대에 화랑국신(花郎國仙)의 연무도장이 되는 한편, 제단을 만들어 산신제를 지냈던 영봉(靈峰)인데 노고단이란 도교(道敎)에서 온 말로, 우리말로는 ‘할미단’이며, ‘할미’는 국모신(國母神)인 서술성모(西述聖母:仙桃聖母)를 일컫는 말이라고 한다(백과사전 노고단).

64) 움, C.G.(2002) : 움 기본저작집 2 《원형과 무의식》, 솔 출판사, 서울, p196.

65) 모성 원형의 성질은 ‘모성적인 것’이다. 그것은 오로지 여성적인 것의 마술적인 권위, 상징적 이해를 초월하는 지혜와 정신적인 숭고함, 자애로움, 돌보는 것, 유지하는 것, 성장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제공자다. 또한 그것은 마술적 변용의 터고 재생의 터다. 또한 도움을 주는 본능이나 충동이며, 비밀스러운 것, 감추어진 것, 어둠, 심연, 죽은 자의 세계. 삼켜버리고 유혹하고 그리고 독살하는 것,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위의 책, pp201-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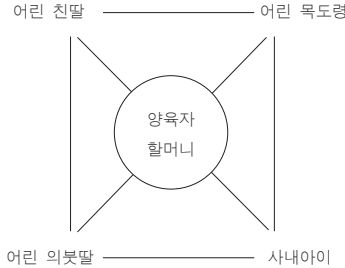


그림 2.

할머니와 두 소녀와 함께 살아가면서 세부적인 절차와 과제를 거쳐야 한다. 나이가 같은 두 명의 소년과 두 명의 소녀는 두 쌍의 남녀이지만 그들은 어린 이들이다. <어린이 원형의 심리학>에 대한 글에서 융은 어린이 주제의 등장 은 일반적으로는 미래의 발전의 앞당김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어린이 상은 대극을 융합하는 상징, 하나의 중재자, 구체자 즉 전체성의 실현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본성의 심연을 포괄하는 전체성의 인격상으로서 자기 자신을 실현하려는 충동을 표현하는 인격상이다.<sup>67)</sup> 4명의 어린이는 어린이 원형의 4가지 측면으로서 성숙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그림 2는 어린 친딸과 의붓딸, 그리고 어린 목도령과 사내아이는 자아와 그림자의 대극의 쌍이고, 어린 친딸과 어린 목도령은 남녀 어린이의 상위적인 쌍이라면 어린 의붓딸과 사내아이는 그 하위적인 쌍으로써 양육하는 할머니를 중심으로 배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머슴살이

머슴살이는 가난한 소년이 살아가는 방법으로써 주로 돈을 번다든지 결혼 할 여자 집에 가서 봉사를 하는 것으로 한국과 중국 소수민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속이다. 고달픈 머슴살이가 가지는 심리학적 의미는 자신을 비천하

66) 한국과 중국의 홍수남매혼 설화, 중앙아시아, 히브리 홍수설화에는 홍수가 끝나고 바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조상이 되는 반면 그리스의 경우, 도착한 사람은 노부부인 데칼리온과 피라로서 긴 방향이 있고 어머니의 빼인 돌맹이를 던짐으로써 인류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점이 특이하다.

67) 융, C.G.(2002) : 융 기본저작집 2 <원형과 무의식>, 숲 출판사, 서울.



게 낮추고 성실하게 봉사해야만 결혼이라는 합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자신을 비천하게 만드는 것은 의식의 수준을 낮추는 것과 관련되고 이런 상황에서 무의식이 더욱 자유롭게 기능하게 되며 그것은 마조히즘과는 상관없고 오히려 신성을 실현화하는 과정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에딩저는 말한다.<sup>68)</sup> Meister Eckhart는 “홀로 고난 받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한 예비과정과 같다”고 했다.<sup>69)</sup> 연금술 문헌에 ‘붉은 색의 머슴’ 혹은 ‘달아나는 머슴’이 라피스의 동의어로 나타난다.

라피스는 마침내 진정한 신격화가 되어 ‘지혜의 아들’의 품격, 혹은 ‘대지의 신’으로서의 위엄, 즉 ‘모든 빛을 비추고 있는 위대한 빛’에, 위와 아래의 힘 모두를 그 안에 갖는 하나의 거대한 힘에 도달한다. 라피스는 영원한 탈 부패에 도달하며, 만병통치약이 된 ‘영광의 몸체’(신격화된 몸체, 즉 구세주다!)가 된다.<sup>70)</sup>

순종하고 묵묵하게 봉사하는 목도령의 우직함이 ‘영광의 몸체’에 도달하는 것에 요구되는 자세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듯하다.

## 그림자의 출현

두 쌍의 소년, 소녀는 벌써 성년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노파는 두 쌍의 부부를 만들어 세상에 인류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친딸을 어느 청년과 맞출지가 어려운 과제였다. 하루는 목도령이 없는 틈을 타서 구조된 청년은 노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도령은 세상에 없는 재주”를 가졌습니다. 한 섬의 좁쌀을 모래밭에 흘려 놓고라도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한 섬의 좁쌀을 모래 한날 섞지 않고 도로 원래의 섬에 주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 목도령은 할 수 없이 한 섬의 좁쌀을 모래밭에 흘려 놓고 그것을 들여다만 보며 있었을 따름이었다.

목도령이 구출한 사내아이는 아버지의 예언대로 차츰 그 악한 본색을 나타낸다. 사내아이는 목도령의 내부에 오랫동안 내버려 두었던 혹은 무의식상태

68) Edinger, E.(1985) : *Anatomy of Psyche : Alchemical Symbolism in Psychotherapy*, Open Court, Illinois, p178.

69) 위의 책, p178.

70) 융, C.G.(2002) : 융 기본저작집 2 《원형과 무의식》, 솔 출판사, 서울. p261.

에 있던 또 하나의 ‘나’인 열등한 인격으로서 그림자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림자는 무의식의 깊은 층에 뿌리를 두고 있고 모든 살아있는 인격의 창조적 심연의 악마인 적대자 원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 뽑을 수 없다. 모든 문화와 종교에서 등장하는 같은 모습의 두 인물은 정신의 내용물이 의식성의 역치에 도달하여 그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현상에 관한 것이라고 폰 프란츠는 말한다.<sup>71)</sup> 대상민담에서 악을 대변하는 사내아이는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던 조건이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해당하며, 집단적 무의식의 영역인 저 너머의 세계의 입구를 수호하고 있는 상징적인 인격체라 하겠다.<sup>72)</sup> 선과 악 둘 다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을 무시했다가는 보복을 당한다. 우리가 대면하지 않으려는 어두운 곳에 전체성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림자를 친구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 개미의 보은 : 좁쌀과 모래의 분리

난데없는 한 마리의 개미가 와서 목도령의 발뒤축을 깨물었다. 그리고 돌아다 보는 목도령을 향하여 무슨 일로 근심을 하느냐고 물었다. 개미는 그 이유를 들고 “그까지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우리들을 살려 주신 은혜를 이제야 갚게 되었습니다.” … 개미들은 다시 인사를 하고 저희 갈 곳으로 가고 목도령은 좁쌀 섬을 지키고 있었다.

모래밭에 뿌려놓은 한 가마니의 좁쌀을 반나절에 원래대로 주워 담는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작업이다. 좁쌀은 가장 작은 낱알의 곡식으로서 모래와 섞인 것을 분리하는 작업은 농경민족으로서 생각해 낼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과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해 내야만 아름답고 지혜로운 친딸을 차지할 수가 있다. 좁쌀이 산간지방에서 재배하는 곡식으로서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모래는 주로 물과 가까운 곳에서 형성되는 먹지 못하는 물질이라는 점에서 대극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분리해야 하는 작업은 많은 민담에서 주인공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 내야 하는 모티브와 동일

71) von Franz, M.L.(1974) : *The Number and Time*,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pp91-92.

72) 위의 책, pp92-93.

하다고 볼 수 있다. 여러 민담에서 나타나는 알곡과 쪽정이를 구별해야 하는 작업은 연금술에서 합일(coniunctio)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종의 단계인 분리 작업(separatio)에 상응한다. 분리작업은 연금술에서 미분화된 원 질료가 무거운(찌꺼기)것은 아래로 가벼운(휘발성 물질)것은 위로 분리하는 것과 관련된 작업이다. 두 개로 분할되는 분리작업이 의미하는 것은 마치 태초의 혼돈에서 하늘과 땅이 갈라지면서 그 사이에 세상이 만들어지듯이 의식성이 출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이집트 창조신화의 Shu(공기의 신)가 Gap(땅)과 Nut(하늘)로부터 분리되기 위하여 먼저 Gap과 Nut와 분리됨을 달성해야만 했던 것과 같고 의식성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는 Shu는 원초적 자아(primordial ego)라 하겠다.<sup>73)</sup>

대극으로 분리한다는 것의 심리학적인 의미는 한 개인이 의식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대극적인 요소들을 담아내는 인내와 그것을 구별해야 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분리작업은 목도령이나 다른 유화에서 주인공이 불사의 약을 구한다든가, 왕자와 결혼한다든가, 친딸을 얻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과제이자 무의식의 영역과 새롭게 조우하는 모든 영역에서 달성해야 하는 작업이다. 분리한다는 것은 임상적으로 신비적 참여(participation mystique)상태에 있는 미성숙한 자아(subject)가 성숙한 자아가 되기 위하여 무의식(object)으로부터 분리되는 것과 관련 있다.<sup>74)</sup> 이를 바꾸어 말하면 무의식적인 투사를 철회한다는 것과 관련되는 작업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sup>75)</sup>

목도령은 개미의 도움으로 첫 과제를 무난히 넘기게 된다. 많은 민담에 여러 가지 동물을 살려주고 보은을 받는다는 모티브가 있다. ‘물고기의 보은’,<sup>76)</sup> ‘개의 보은’, ‘올챙이의 보은’, ‘팽의 보은’,<sup>77)</sup> ‘두꺼비의 보은’<sup>78)</sup> 등이 있다. 대상민

73) Edinger, E.(1985) : *Anatomy of Psyche : Alchemical Symbolism in Psychotherapy*, Open Court, Illinois, p187.

74) 위의 책, p187.

75) von Franz, M.L.(1972, 1995) : *Creation Myths*, revised edition, Shambhala, Boston & London, pp3-4.

76) 임석재(편)(1972) : 《한국구전설화》, 임석재 전집 1. 평민사, 서울, p64.

77) 임석재(편)(1972) : 《한국구전설화》, 임석재 전집 4. 평민사, 서울, pp170-175.

78) ‘지네장터설화’에서 지네를 대결하게 되는 두꺼비를 기른 순이, 이부영(1995) :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담의 경우 보은을 하는 동물이 곤충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전기했듯이 곤충은 미물이지만 인간의 내면에 살아있는 누미노제의 경험을 매개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돌보지 않는 무의식이다. 개미의 보은은 마치 한 인간이 자신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곤경에 빠졌을 때 무의식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의식을 도와준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무의식의 소리에 신중하게 귀를 기울일 때 실제로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엄청난 무의식의 원형적 힘을 체험할 수 있다. 개미가 발뒤축을 짚었다는 것은 무의식에 해당하는 발의 뒤쪽을 짚어서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작은 절림이 작은 것이 아니고 작은 무의식의 메시지가 큰 뜻을 품고 있다는 의미는 동양의 전통사상의 핵심주제가 되는 크고 작음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작고 보잘 것 없는 것 속에 전체가 있다는 ㉠의 사상과 연관시킬 수 있다.

### 모기의 보은 : 동쪽과 서쪽의 구별

노파는 목도령에게 친딸을 주려고 하였으나 다른 청년이 그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었으므로 노파는 한 방법을 생각해 내어 어떤 어둔 밤에 두 청년을 밖으로 내어 보내고 두 처녀를 東과 西 두 방에 넣어 두었다 … 두 청년은 서로 어느 방으로 갈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때는 마침 여름이었다. 한 무리의 모기가 목도령의 귀 옆으로 지내 가면서 “목도령 東쪽 방으로 엉당당글”하였다. 그래서 목도령은 동쪽 방으로 가서 노파의 친딸을 얻게 되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 두 쌍의 부부의 자손이라고 한다.

거부된 인격(악)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의식에 커다란 진전이 이루어졌을 경우 무의식은 모든 것을 다시 무로 돌려놓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식의 발달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sup>79)</sup> 두 번째의 과제는 어둔 밤에 주어진다. 어둔 밤은 야반도주를 감행하는 시간이거나 역사적으로 수많은 기습공격이 있었던 시간이다.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어둠·무의식 속에서 어떤 작전이 시작되는 시간이라 할 수 있고 대상 민담에서는 2쌍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작전이 펼쳐지는 절정의 시간이다. 어두운 밤·무의식에

79) Von Franz(1996) : *The Interpretation of Fairy Tales*, Shambhala, Boston, p78.

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실감하게 한다.

동(東)쪽은 해가 뜨는 방향, 동쪽은 소생과 부흥을 뜻한다.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해가 솟고 새날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빛이 시작하는 곳이고, 우주적 정신이 있는 동쪽은 12지로는 토끼이다. 신라의 시조 혁거세가 탄생했을 때 동천에서 목욕을 시켰다. 동쪽을 뜻하는 푸른색은 젊음, 청결, 싱그러움, 그리고 시작을 상징한다. 역경에서 동쪽에 해당하는 진괘(震卦)는 장남에 해당하고 만물이 발동하는 형상으로서 우리나라를 가리킨다. 만물의 성장은 동쪽에서 비롯된다 하여 태자를 동궁에 두었고 태자 또한 동궁이라 불렀다. 서양에서 동쪽은 생명과 빛을 상징하고 동쪽을 향하는 것은 영적인 계시와 신으로 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에서는 제단이 동쪽에 자리 잡으며, 죽은 이를 매장할 때에 두발을 동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나타낸다. 동쪽이 우리 민족의 시원에서부터 중요한 상징으로서 삶이 생성되는 방향이라면 서(西)쪽은 암흑과 소멸과 관련된다. 한자어 西는 새의 등지를 본뜬 상형문자이고 새가 깃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12지에서는 신(臣)을 뜻한다. 서향은 해가 지고 어두운 밤을 향하는 방향이다. 무속신화에서 서천 꽃밭에는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약초가 있고 오방신 중에 처용은 서쪽의 신으로 서쪽의 상징인 흰옷을 입는다.<sup>80)</sup> 불교에서 시방(十方)중에서 서향은 먼 서쪽에 있다고 말하는 하나의 이상향(理想郷)인 서방정토(西方淨土)를 의미하며 아미타불(阿彌陀佛)의 극락세계로서 부처와 중생이 동거하는 동거토(同居土)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81)</sup> 인간 세계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먼 거리에 있는 서방정토는 공간적인 거리의 개념보다는 자아 차원에서는 가늠할 수 없는 무의식의 속성과 비슷하다 하겠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서쪽은 내세의 땅이다. 이집트를 남북으로 달리는 나일 강을 중심으로 홍해와 면한 동쪽은 삶의 공간, 사막과 이어지는 서쪽은 죽음의 공간이자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영역이었다.<sup>82)</sup> 이

80) 한국문화상징편찬위원회(1996) : 《한국문화상징사전》, 두산동아, 서울.

81) 만다라에서 서방의 무량수여래(無量壽如來)는 금강계 만다라의 서방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와 동체이다. 만다라 교설에는 깨달음의 세계를 실감하는 단계를 의미하는 보리를, 금강계 만다라의 아미타불은 지혜와 자비의 상징이다.

82) 이집트의 문명은 죽음과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왕가의 계곡, 아부심벨과 룩소르의 신전, 투탕카멘의 황금마스크가 예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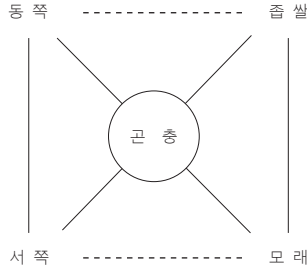


그림 3.

집트에서 서쪽 사람은 사자(死者)를 뜻하고 기독교의 세례식 때에 서쪽을 향하는 것은 현세를 버린다는 의미이다.<sup>83)</sup> 서쪽은 생을 초월하는 죽음과 영원으로 통하는 정신적인 고향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때로는 서쪽이 진취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미국의 서부 개척사에서 의미하는 서부는 금을 얻기 위한 초기 정착자들이 ‘미국의 꿈’을 찾아가는 길이었다. 또한 콜럼버스가 갔던 서쪽도 같은 목적이었지만 결국 동쪽으로 가는 길이었다. 비록 그들의 동기가 물질적인 것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큰 의미로 볼 때 동서가 하나의 큰 원을 이룰 수 있게 했다고 보는 시인 휘트먼의 주장을 동감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동쪽의 가치관을 선호하는 현대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그림 3은 곤충의 도움으로 좁쌀과 모래의 대극이 분리되고, 동쪽과 서쪽이 구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쪽과 좁쌀은 방향과 물질의 상위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서쪽과 모래는 방향과 물질의 하위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으나 그 관련성이 명료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점선으로 처리하였다.

### 친딸과 의붓딸

친딸과 의붓딸에 관한 모티브는 콩쥐팥쥐전, 신데렐라 등 많은 민담에 나타난다. 그 공통점은 친딸은 귀중하게 다루고 의붓딸은 천대한다는 것이다. 대상 민담에서 친딸은 현명하고 아름답고 의붓딸에 대해서 언급이 없지만 우매하고 추하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의붓딸과 사내아이 쌍과 친딸과 목도령

83) 한국문화상징편찬위원회(1996) : 《한국문화상징사전》, 두산동아, 서울.

쌍은 우월한 것과 열등한 것의 대극이라 할 수 있고 의붓딸은 친딸의 그림자라 할 수 있다. 아름답고 현명한 친딸은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원하는 미모와 지성을 갖춘 집단의식이 선호하는 가치관이다. 그래서 대상 민담에서 두 남자 모두 친딸을 선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붓딸이 없이는 전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할머니가 바로 목도령에게 승리를 안겨주지 않고 악한 소년을 배려했던 이유가 될 것이다. 민담은 적법한 합일이나 깨달음은 쉽게 얻어지거나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고 시련을 통한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과, 모기 즉 무의식의 힌트에 주목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친딸이 혈연관계라는 점에서 내부적인 실세 또는 주류라고 한다면 의붓딸 또는 노비는 외부에 내쳐져 있는 비주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받혀주는 비주류가 없이는 실세나 주류가 없는 것이고 남이 없는 우리가 없고, 의붓딸이 없이는 친딸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매하고 추한 것, 비주류, 의붓딸인 그림자도 존중 받아야 하는 것이다. 도가에서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이는 보기 흉할 뿐이요, 착한 것만이 착한 줄 알지만 이는 착하지 않은 것이고, 높음과 낮음 또한 서로 바뀌고, 앞과 뒤는 서로를 따른다고 했다.<sup>84)</sup> 동쪽같이 쬐고 솟아나는 것과 친딸과 같은 것을 선호하는 의식의 일방성은 페르조나 적인 것에 의존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이는 상선(上善)이 아니고 도(道)가 아니다.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 두 쌍의 결혼과 새 인류의 창달

그들 두 쌍의 부부에 의해 사람의 씨(종자)는 겨우 이어지게 되었다. 그들이 오늘날 인류의 조상이다.

홍수 관련 유회들에서는 주로 남매, 모자, 혹은 가족들이 조상이 되는데 두 쌍의 남녀라는 것이 특이하다. 두 쌍, 즉 4명의 남녀는 정신의 전체성의 상징인 사위(四位, quaternio)이다. 두 쌍의 결혼으로써 대상민담과 연관되는 것은 고대이집트의 시조가 되는 슈(Shu)의 자녀들인 오시리스·이시스, 세트·네프티스의 두 쌍을 들 수 있다. 오시리스와 이시스는 이집트왕조의 시조인

84) 임채우(윤김, 2005) : 《왕필의 노자주》, 한길사, p52.

호루스를 낳았는데 호루스의 탄생과정이 목도령의 모티브와 매우 닮아 있다. 그는 에리카(Erika) 나무로서 비브로스 궁전의 기둥이 된 오시리스(나무·아버지)와 “달의 눈(月目)을 가진 천상의 소, 이시스(천상선녀·어머니)는 추분에 호루스 낳게 될 씨를 받아들여”<sup>85)</sup> 호루스를 낳는다. 이시스가 죽은 오시리스를 찾기 위하여 배를 타고 길을 떠나 온 세상을 헤매다 비브로스 해안가에 상륙한다는 점은 무의식의 바다·물을 건너 통합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 도착한다는 목도령의 여정과 비슷하다. 나무·아버지로서의 오시리스의 운명은 꺾꽂, 바다, 나무, 아스타르트의 기둥들로 이어가면서, 조각나고 다시 형태를 갖추어 아들 호로-피-크루트로 새롭게 나타난다.<sup>86)</sup> 이 모티브 역시 아버지·나무는 사라졌지만 나무·아버지가 아들 목도령(호루스)으로 새롭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연관시켜 볼 수 있다.

사위(四位)결혼은 상위적인 합일이 이루어지면 하위는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목도령과 친딸이 합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위 쌍이 합일하게 된다. 춘향전의 춘향과 이도령 그리고 방자와 향단과 마적(魔笛)등의 오페라 작품에서 등장하는 두 쌍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 두 쌍의 탄생이 가지는 심리학적 의미는 개성화과정에서 자아의 노력과 투쟁도 중요하지만 개성화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무의식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의해서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림 4는 성인이 된 두 쌍의 남녀가 할머니의 주재로 상위쌍과 하위쌍의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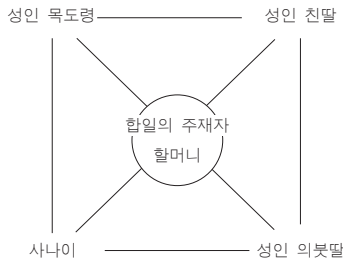


그림 4.

85) 융, C.G.(2006) : 융 기본저작집 8 《영웅과 어머니 원형》, 솔 출판사, p173.

86) 위의 책, p127.



혼을 하는 전형적인 사위결혼을 보여주고 있다.

숫자 4는 하나의 네 가지 측면으로 전체이자 하나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4 지점의 중심은 그노시스 문헌에 나타나는 단자(Monad)나 사람의 아들(Son of man), 또는 신들과 사람의 시원인 대양과 같은 무엇(Oceanus)으로서 모든 우주의 근원이자 누구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닌(unbegotten) 무엇으로 부패하지 않고(incorruptible) 영원히 존재하는(everlasting) 자기의 속성과 비슷하다고 하였다.<sup>87)</sup> 수메르의 대 홍수 설화<sup>88)</sup>는 “신처럼 사는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살았다.”<sup>89)</sup>라고 마감하고 있는데 시간의 개념을 상대화하는 알파와 오메가로서의 자기의 속성<sup>90)</sup>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민담이 “오래 오래 잘 살았다.”라고 마감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自己 또는 전체가 된다는 것에는 자아가 성장 분화되어 객관적인 정신을 경험하여 최고의 인격이 된다는 의미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도 포함 된다고 하겠다.

#### 4개의 사위(四位) : 전체성의 복원과 분별할 수 있는 4 기능

대상민담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아버지·나무를 중심으로 한 목도령·사내아이 그리고 모기·개미의 ‘부성적 사위’(그림 1), 할머니를 중심으로 한 나이가 같은 두 쌍의 소년 소녀의 ‘모성적 사위’(그림 2), 곤충을 중심으로 한 성숙을 위한 ‘시련의 사위’(그림 3), 그리고 성인이 된 두 쌍의 남녀가 결혼하게 되는 ‘통합적 사위’(그림 4) 등 4개의 사위의 구조가 있다고 추정해 보았다. 분석심리학에서 사위 특히 여러 차원의 대극적인 것이 보상 혹은 보완되는 ‘4개의 사위(fourfold quaternity)’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sup>91)</sup> 융은 자기의 역동성

87) Jung, C. G. (1950) : *Aion, Research into the Phenomenology of the Self*, (2nd ed.) C.W. 9, II, Princeton University Press, p227-248.

88) 조철수(1996) : 《수메르 신화》, 서해문집, 서울, pp55-56.

89) 어머니의 빼인 돌맹이로 인간을 만든 지우쑤드라는 큰 신들의 축복을 받아 신처럼 사는 영원 생명을 얻어 ‘작은 기는 것들과 사람의 이름’을 보호하기 위해 바다 건너편에 있는 달문 땅에 가서 영원히 살았다고 전한다. 지우쑤드라의 뜻은 목숨이 오래 있을 것이라는 의미. 위의 책, p60, 각주 16.

90) Jung, C. G. (1950) : *Aion, Research into the Phenomenology of the Self*, (2nd ed.) C.W. 9, II,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227-248.

과 그 구조에 대한 연구에서 ‘4개 사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뭔가 “승화”되고 전진하고 물량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사위로 대변되는 전체성이 네 번 펼쳐져야 한다. 이것의 의미는 의식화된다는 것과 다름없다. 정신의 내용물이 네 개로 나뉘게 된다는 것은 의식성이 네 가지 측면으로 대변되는 심리적인 기능에 의하여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 네 가지 요소의 연출을 통해서만 전체에 대한 서술이 가능하다.<sup>92)</sup>

융은 “한 사이클이 전체가 되려면 시작했던 지점으로 되돌아가야 변환과정의 핵심적인 형태가 완성되고 이 형태는 중심을 축으로 하여 돌아가는 만다라의 의미와 같다.”고 하였다.<sup>93)</sup> 대상 민담에 나타난 여러 사위의 구조를 융이 제시한 자기의 구조에 적용하면 ‘부성적 사위’(A)로 시작하여 혼돈의 홍수를 거쳐 ‘모성적 사위’(B)가 되고, ‘시련의 사위’(C)를 거쳐 ‘통합적 사위’(D)로 가게 되면 다시 시작(A)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융은 D에서 A로 가는 이 시점이 일종의 에난치오드로미아(enatiodromia)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였다.<sup>94)</sup> 이를 도표화 하면 그림 5와 같다.

대상 민담에 나타난 여러 사위의 구조를 그림 6의 fourfold structure of unity(A=a, b, c, d)의 원리<sup>95)</sup>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 1) 아버지 · 나무(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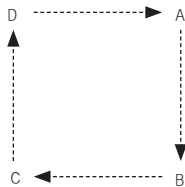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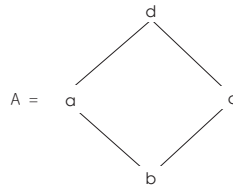


그림 6.

91) ‘四位의 四位’는 apocatastasis, 연금술사들이 근원적인 전체성(wholeness)의 상징인 우로보로스로 표현했고 이러한 개념들이 고대 연금술에서 “네 개의 구조로서의 단위(fourfold structure of unity)”를 암시하는 tetrameria 개념을 만들어 냈다고 하였다. Jung, C. G. (1950) : *Aion, Research into the Phenomenology of the Self.* (2nd ed.) C.W. 9, II, Princeton University Pres, p259, ff. 410.

92) 위의 책, p259, ff. 410.

93) 위의 책, p259, ff. 410.

94) 위의 책, p259, ff. 410.

95) 위의 책, p259(도표)

를 축으로 한 어린 목도령(a), 사내아이(b), 개미(c), 모기(d), 2) 할머니(B)를 축으로 한 어린 목도령(a-1), 사내아이(b-1), 의붓딸(c-1), 친딸(d-1), 3) 개미와 모기(C)를 축으로 동쪽(a-2), 서쪽(b-2), 모래(c-2), 조(d-2), 4) 새 인류의 조상(D)을 축으로 한 성인으로서의 목도령(a-3), 사나이(b-3), 의붓딸(c-3), 친딸(d-3)이다. 응은 “한 사이클이 전체가 되려면 시작했던 지점으로 되돌아가야 변환과정의 핵심적인 형태가 완성되고 이 형태는 중심을 축으로 하여 돌아가는 만다라의 의미와 같다고 하였다.”<sup>96)</sup> 대상 민담의 맥락에서 볼 때 A은 일종의 시작 혹은 재시작이라 할 수 있고, B는 혼돈의 홍수, C는 시련, D는 질서가 생기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림 7은 대상 민담의 전 과정인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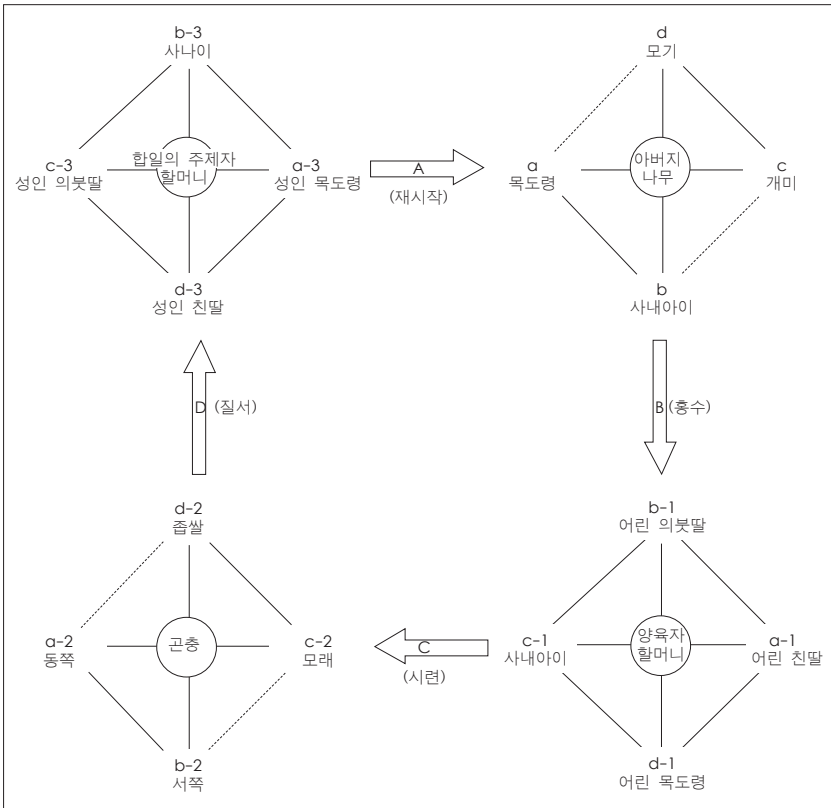


그림 7.

96) 위의 책, p259, ff. 410.

에서 D가 마감되면 다시 A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용은 ‘4개의 사위’의 의미는 고대인들이 신의 이미지(*imago Dei*)를 그저 생명력 없는 단순한 흔적이나 stereotype같은 것이 아니고 능동적인 힘(active force)이라고 했던 것과 같다고 했다. 역동적 과정을 포함한 자기상징은 정체되어 있는 하나의 사위가 아니라 4개의 사위를 포함하는 능동적인 변형과정으로서 복원(restoration)과 회춘(rejuvenation)이 일어나는 과정이다.<sup>97)</sup> 용은 복원과 회춘은 원형이 가져다주는 누미노제적인 힘으로서 물리학에서 말하는 quantum leap의 개념이나 원자력 발전의 용어인 “젯더미 속에서 솟아 오르는 봉황”<sup>98)</sup>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정신과 물질은 같은 세상에서 존재하는 또 다른 대극이고 그 대극의 상호관계에서 모든 초월적인 현상 및 동시성 현상의 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며 물리학과 분석심리학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에 있음을 시사하였다.<sup>99)</sup>

## 나가는 글

인간의 삶에서 여성적인 원리와 남성적인 원리로 대변되는 모든 대극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어느 한 원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작용할 때 개인이나 집단 모두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 민담 <목도령>은 여성성의 부재 즉 메마른 영역에서 풍요의 영역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용은 여성의 심리학은 묶고 푸는 데에 뛰어난 에로스의 원리를 근거로 하고 있는 반면에 오래전부터 최고의 법칙으로써의 로고스는 남성의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현대어로 에로스의 개념은 심혼과의 관계이고 로고스는 사실적인 관심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100)</sup> 현대 문명이 남성적인 응용과학 중심이 되면서 심혼으로부터 멀어져 여성성적인 심혼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당면한 과제로써 종교도 이러한 시대정신

97) Jung, C. G.(1950) : *Aion, Research into the Phenomenology of the Self.*, (2nd ed.) C.W. 9, II, Princeton University Press, p260, ff 411.

98) Gamow, *Atomic Energy*, p72, Jung, C.G. : *Aion*, p260, ff 411. 재인용.

99) Jung, C. G.(1950) : *Aion, Research into the Phenomenology of the Self.*, (2nd ed.) C.W. 9, II,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260-261, ff 411-413.

100) 용, C.G.(2004) : “유럽의 여성,” 용 기본저작집 9, 《인간과 문화》, 솔 출판사, 서울, p. 46.

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응은 말한다.

오늘날 종교의 가르침은 혼을 지나치게 오로지 신에게만 유보하고 그 점에서 인간은 손해를 보고 있고, 신 자신도 심혼이 영양실조에 걸린 인류 가운데서는 번영할 수 없다. 이러한 굶주림 상태에서 여성의 심혼이 반응한다. 로고스가 구별하고 해명하는 곳에서 에로스는 서로 결합시키기 때문이다. 현대의 여성 앞에는 막중한 문화 과제가 놓여 있으며, 이것이 아마도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할 것이다.<sup>101)</sup>

집단의식에 함몰되어 외향적인 삶에 치우친 현대인들의 삶은 황량하고 메마를 수 밖에 없다. 대담민담은 개미, 모기, 사내아이 같은 부분을 모두 포함시켜야 새 역사가 창달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악은 배제하는 종교의 도그마와 인간정신의 보편성을 대변하는 민담과의 차이라는 점과, 전체가 되는 것에 '4개의 사위'가 포함이 되고 거기서 생성되는 그 무언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과 연관된다는 것을 막연하나마 깨닫게 된다.

목신에 관한 대상 민담의 해석 과정은 연구자에게는 마치 하나의 나무뿌리를 추적해보는 작업과 같았다. 처음에는 땅 표면을 끼적이며 이것저것 건드려 보다가 뿌리가 드러났는가 하면 바로 또 셋가지들이 있고 또 여러 잔가지가 있음을 보았다. 어린 시절에 풀뿌리를 캐서 인형을 만들어 놀았던 적이 있다. 그만큼 자료가 귀했기 때문이었다. 술이 많은 풍성한 머리갈의 인형을 만들려면 가급적 잔뿌리들이 상하지 말아야 했다. 이 연구에서 자기의 역동적인 전체구조를 보여주는 '4개의 사위'가 가지는 의미를 발견한 것은 마치 어린 시절 소박한 연장으로 뿌리가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파 내려갔다 마지막에 뿌리 전체를 쑥 뽑아냈을 때의 경험과 비슷한 것 같다. "풀뿌리"는 땅속에 넓고 깊게 퍼져 있다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서투른 솜씨와 성급한 마음으로 추적해 보았던 풀뿌리의 많은 부분들은 아직 땅속에 남아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풀뿌리"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김형효(2004) : 《사유하는 도덕경》, 소나무, 서울

101) 위의 책, p58.

- 김태곤(1971) : 《한국 무가집》, 원광대 민속학 연구소, 전북
- 박시인(1994) : 《알타이 神話》, 청노루, 서울
- 박 신(2004) : 《부성콤플렉스의 분석심리학적인 이해》, Diploma Thesis of C.G. Jung Institute of Korea
- 손진태(1947) : 《韓國說話의 研究》, 佛典에서 나온 民族說話 편, 1953, 을유 출판사, 서울
- 손진태, 강혜정, 김현선, 이경애(2000) : 《한국민화에 관하여》, 역락, 서울
- 손진태(2009) : 《조선설화집》, 최인학 옮김, 민속원, 서울
- 장주근(2000) :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서울
- 정재서(2004) : 《이야기 동양신화 1》, 황금부엉이, 서울
- 조철수(1996) : 《수메르 신화》, 서해문집, 서울
- 조희웅(1996) : 《한국설화의 유형연구》, 일조각, 서울
- 조자용(1995) : 《삼신민고》, 도서출판 가나아트, 서울
- 한상수(편)(1980) : 《한국민담선》, 정음사, 서울
- 임석재(편)(1972) : 《한국구전설화》, 임석재 편집 1-4. 평민사, 서울
- 李能和(1929) : 朝鮮神事誌, 1978, 韓國學研究所
- 이부영(1995) :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서울
- 이부영(1987) : “元曉의 神話와 眞實”, 《불교연구》 3: 97-112
- 이부영(1998) : 《분석심리학》(개정판), 서울: 일조각
- 이부영(1999) : 《그림자》, 한길사
- 이부영(2002) :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 임채우(옮김, 2005) : 《왕필의 노자주》, 한길사, 서울
- 윤, C.G.(2002) : 윤 기본저작집 2 《원형과 무의식》, 솔 출판사, 서울
- \_\_\_\_\_ (2003) : 윤 기본저작집 3, 《인격과 전이》, 솔 출판사, 서울
- \_\_\_\_\_ (2004) : 윤 기본저작집 6,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솔 출판사, 서울
- \_\_\_\_\_ (2004) : 윤 기본저작집 9, 《인간과 문화》, 솔 출판사, 서울
- \_\_\_\_\_ (2005) : 윤 기본저작집 7, 《상징과 리비도》, 솔 출판사, 서울
- \_\_\_\_\_ (2006) : 윤 기본저작집 8, 《영웅과 어머니 원형》, 솔 출판사 서울
- 최내옥(1980) : “한국홍수의 변이양상”, 한국민속학, 12 집
- 최상수(1984) : 《韓國民間傳說集》, 通文館, 서울
- 한국문화상징편찬위원회(1996) : 《한국문화상징사전 1. 2》, 두산동아, 서울
- 그림형제(김열규 옮김, 1999) : 그림형제 동화전집, 현대지성사
- 미하엘 쾰마이어(편)(1966) : 볼핀치 원작 《그리스 로마 신화》, 유혜자 옮김, 2002, 현암사, 서울
- 비엘레인(1994) : 《세계의 유사신화》, 현준민 옮김(1996), 세종서적
- Ackroyd, E.(1993) : 《꿈 상징사전》, 김병준 옮김, 1997,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Apt, T.(2005) : 《윤 심리학적 그림해석》, 이유경 역, 2008, 분석심리학연구소

- Brosse, Jacques**(1989) : 《나무의 신화》, 주향은 역, 1998, 어학사, 서울
- Edinger, E.**(1984) : The Creation of Consciousness, Inner City Book, Toronto
- Edinger, E.**(1985) : Anatomy of Psyche: Alchemical Symbolism in Psychotherapy, Open Court, Illinois
- Von Franz, M.L.**(1974) : The Number and Time,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Von Franz, M.L.**(1996) : The Interpretation of Fairy Tales. Shambhala, Boston
- Von Franz, M.L.**(1999) : The Cat: A Tale of Feminine Redemption, Inner City Books, Toronto, Canada
- Von Franz, M.L.**(1972, 1995) : Creation Myths, revised ed., Shambhala, Boston & London
- Jung, C. G.**(1924) : Symbol of Transformation, C.W. 5,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ung, C. G.**(1950) : Aion, Research into the Phenomenology of the Self, (2nd ed.), C.W. 9, II,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ung, C. G.**(1938) : Alchemical Studies, C.W. 13,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ung, & Kerenyi**(1969) : Essays on a Science of Mytholog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ung, C. G.**(1936): Archetypes of the Collective Unconscious.” C.W. 9, I,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hompson, S.**(1975) : Motif Index of Folk-Literature,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 London
- Ulansey, D.**(1989) : The Origins of the Mithraic Mysteries: Cosmology and Salvation in the Ancient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New York, Toronto

Shim-Sŏng Yŏn-Gu 2010, 25 : 2

<ABSTRACT>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of Fairly Tale *Mokdoryung*, Son of Tree**

Jin-Sook Kim \*\*

A brief story of the tale follows : *Mokdoryung* was a son of an arbor tree and a fairly. When the boy was 7–8 years old, mother-fairy returned to the sky. By using father-tree, *Mokdoryung* survived from the flood where he saved ants, mosquitos, and a boy with the same age. They arrived on top of the highest mountain, met an old woman with two daughters, worked as servants. With help of insects, *Mokdoryung* passed the trials, married to a wise daughter and 2 couples became the ancestor of the mankind.

Interpretation of the tale starts with amplification of tree which symbolizes Self and Libido. As the son of the tree-spirit and a fairly from the sky, *Mokdoryung* is a kind of ‘divine child’ which represents a psychic possibility to understand archetypal nature of unconscious. Adversities of early childhood due to mother’s absence regarded as necessary condition for ‘divine child’ to attain highest good. Flood can be compensation of absence of feminine as well as to bring a new life. The notion of father-tree becomes a kind of life-boat has to do with union of opposite(vertical phallic tree and horizontal feminine boat). Ants and mosquitoes represent upper and lower level of unconsciousness, they mediate divine power. Therefore respecting insects means respecting unconscious, and reward of insects means salvation come from unconscious. The boy saved from the flood presents emergence of psychic energy in its latent unconscious condition to create mental dynamism. The old woman is Great Mother or anima, the controller or guider of unconscious. Working as servants can be an active service for the divine marriage. Trials of separating millet from sand, and finding right direction relate to *separatio*, means one needs to be separated from unconscious before *conunctio*, union of opposite.



Two sets of couple becoming ancestor of man-kind has to do with number 4 (quaternity) as well as regeneration. Although the tale includes both positive couple (*Mokdoryung*, wise daughter in east room). and negative couple (shadow side of *Mokdoryung*, step daughter in west room) as ancestors of mankind, “Good” seems to be more valued than “evil”.

**KEY WORDS** : Tree · flood · Quaternity · Ancestor.

---

*\*\*Professor, Chairperson of Department of Arts Psychotherapy, Myongj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Seoul, Korea. Advanced candidate of C.G. Jung Institute of Korea, Seoul*